

보도시점 2026.9.21.(월) 10:00 배포 2026.9.21.(월) 07:30

인공지능(AI)시대의 데이터 혁신 활용 거점 ‘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’ 추가 지정

- 국세청, 조세·재정분야 특화 데이터 분석 지원
- 질병관리청, 감염병 전주기 데이터·국가 건강조사 데이터 특화 분석 지원

개인정보보호위원회(위원장 송경희, 이하 ‘개인정보위’)는 9월 21일(월) 국세청과 질병관리청을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(이하 ‘이노베이션 존’) 운영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.

이번 국세청과 질병관리청이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이노베이션 존은 총 8개에서 10개*로 늘어나게 된다.

* (지정기관) 국가데이터처(구.통계청), 국립암센터, 한국사회보장정보원, 더존비즈온, 한국도로공사, 한국교육학술정보원, 광주테크노파크,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, 국세청, 질병관리청

이노베이션 존은 다중 인증 방식, 실시간 화면 녹화 등 보다 안전한 데이터 처리 환경을 갖춘 공간으로서, 이용자들은 일반적인 연구공간에서는 시도가 어려웠던 ▲가명처리 수준 완화, ▲다양한 결합기 활용, ▲지속·반복적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의 장기간 보관, ▲제3자 재사용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, 여기에 ▲빅데이터(영상·이미지 등) 표본 검사, ▲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(PET) 실증 연구 등도 가능하다.

이번 신규 지정된 기관들은 이노베이션 존 운영 요건에 맞는 시설·기능 등에 관한 개인정보위의 최종 현장실사를 거쳐 내년 초 본격 운영을 시작

할 예정으로, ▲조세·재정분야 데이터, ▲감염병 전주기 데이터, ▲국가 건강 조사 데이터와 같은 국민생활에 밀접한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사례들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.

앞으로 개인정보위는 이노베이션 존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, 구축 중인 연계 허브를 통해 운영기관 간 데이터 연계·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. 아울러 다양한 데이터 활용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 세미나·간담회 등 협업 체계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 부합하는 한 차원 높은 수준의 혁신적인 개인정보 활용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 원 세 연 (02-2100-3071)
		담당자	사무관 소 성 은 (02-2100-3074)
<공동>	한국인터넷진흥원 데이터안전활용팀	책임자	팀 장 이 상 결 (061-820-2910)
		담당자	주 임 김 예 진 (061-820-2915)



참고

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 신규 지정 기관

【 국비지원 분야 】

1

국세청

※ 위치 : 서울시 종로구(국세통계센터 서울센터)

- 위치 : 서울시 종로구(국세통계센터 서울센터)
- 분석환경 : 분석공간 1실, PC 4대
- 중점분야 : 국세데이터(자체 데이터 보유)
 - 국세청 조세·재정분야를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표준 모델로 제시하고 결합 결과물 재사용을 통해 데이터 제공기간 단축
 - 국세청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시계열 분석이 필요한 정책연구 등 반복 결합 연구 지원
- 연계기능 : 결합(데이터)전문기관 ○, 데이터안심구역 X,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X

【 자체구축 분야 】

1

질병관리청

※ 위치 : 충북 청주시(질병관리청 별관)

- 분석환경 : 분석공간 4실, PC 6대
- 중점분야 : 보건의료(자체 데이터 보유)
 - 감염병 전주기 데이터 수집, 유전체·바이오 데이터 등 연구개발(R&D) 직접 생산하는 등 원천 보건의료 데이터 직접 생산·보유
 -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을 통해 질병관리청 보유 개인정보파일 75개 대상 단계적으로 개방 예정
 -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내 장기보관·제3자 재사용 활용
- 연계기능 : 결합(데이터)전문기관 X* 데이터안심구역 X,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X
 - * 향후 결합전문기관 지정 조건 구비 및 지정 신청 추진 예정